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둔화하는 인플레이, 제품·주거비용·서비스에 달렸다
- Bloomberg: 미 소비자 물가를 보니 연준 갈 길 멀어

[미국 금융]

- Bloomberg: 모건스탠리, “주식, 올봄에 저점에 도달한다”

[뉴욕시]

- Bloomberg: 사무실 인력 감소에 맨해튼 소비 지출 1백20억불 줄어

[중국 경제]

- WSJ: 글로벌 경제 회복에 중국 의존하지 말라
- WSJ: 주요 다국적 기업들, 중국에 다시 접근... 미·중 갈등 불구

[부동산]

- CNBC: 작년 말 미 집값 상승폭 연 6.9%로 가장 낮아

[고령화사회]

- The Economist: 전 세계 조부모 계층 비율 크게 늘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번아웃을 피하는 네 가지 방식은?
- WSJ: 아마존·MS·구글, 중국의 동남아 클라우드 경쟁사들에 압박 받아
- CNBC: 아이다스의 골칫덩어리로 되어버린 ‘Yeezy’, 실적 부담 토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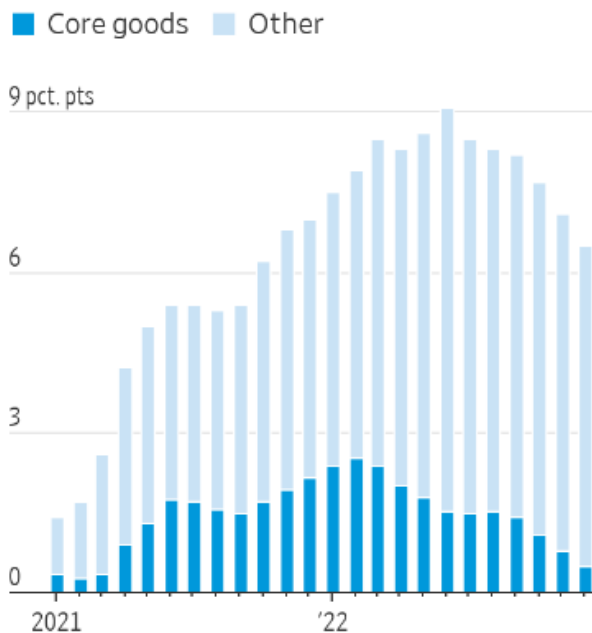
WSJ: Inflation Is Falling, and Where It Lands Depends on These Three Things

둔화하는 인플레이, 제품·주거비용·서비스에 달렸다

- 시장은 금리 인하를, 파월 의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누가 맞을지는 제품, 주거 비용, 서비스에 달렸다. 침체는 가격을 끌어내리지만 가속적인 성장은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된다.
- 제품 관련해서는 제품에 대한 지출 저하, 공급망 개선, 운송료 저하 때문에 향후 수개월간 가격 압력이 낮아질 것.
- 주거 비용은 올봄에 계속 상승하지만 이후 크게 떨어질 것에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올해 12월에 5.3%로 감소할 예정이다.
- 임금 상승률은 최근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인플레이 목표에 도달하기 힘든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중반에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실업률이 올해 말 4.5%, 내년 말에 5.5% 증가를 예상했지만 다른 경제학자들은 소득이 빨리 증가하고 있어 지출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ontribution to the 12-month increase in the consumer-pric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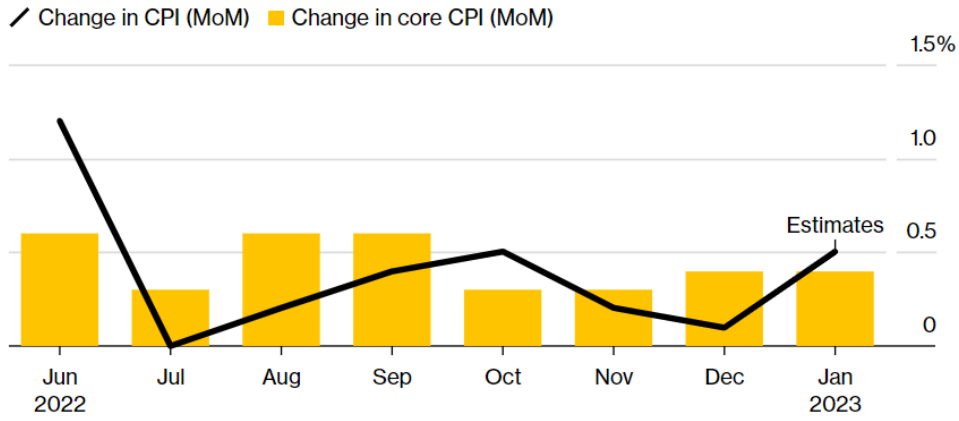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Bloomberg: US Consumer Prices May Show Fed Has More Work to Do
미 소비자 물가를 보니 연준 갈 길 멀어

- 최근 인플레가 40년 사상 최고치에서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 압력을 소멸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준은 이와 같은 입장이다.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임금 인플레가 예의 주시되고 있다.
- 미 소비자들이 개인 재정 상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물가 압력 때문이다. 갤럽의 지난 수요일 설문에서 따르는 응답자 50%는 재정 상태가 작년 보다 감소했다는 것. 다행스러운점은, 핵심 물가는 작년 4분기에 떨어졌다.
- 모건스탠리는 가격 압력이 작년 여름과 가을의 최고치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US Consumer Prices Projected to Pick Up in January



Sourc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Morgan Stanley Strategists Say Stocks Ignore Fed, Earnings Reality

모건스탠리, “주식, 올봄에 저점에 도달한다”

- 모건스탠리 전략가들에 따르면 주식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한 것이라는 가격을 성급하게 반영한 후에 이제는 떨어질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
-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등 더 오랫동안 제약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주식을 외면하고 있다.
- 전략가들은 올해 봄 베어마켓이 밑바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어닝 실적이 나쁜 상황에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고 있어 주식시장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Remote Work Is Costing Manhattan More Than \$12 Billion a Year

사무실 인력 감소에 맨해튼 소비 지출 1백20억불 줄어

- 사무실로 복귀하는 인력이 줄어든 상태다. 장거리 통근, 대중버스 이용, 식당 지출 등이 줄어든 상태다.
- 이에 따라 맨해튼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 날짜가 30%가 줄어 1백24억달러의 소비 지출이 줄었다. 스탠포드 WFH Research group의 데이터를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 보도했다. 2019년 맨해튼 근무자와 거주자 2백70명에 대해 인플레이 조정된 연간 소비 손실액을 반영해서 계산한 수치다.

- 현재 평균 근로자들은 맨해튼 사무실 가까운 곳에서의 식사, 쇼핑, 유흥 등에 연간 평균 \$4,661 사용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3,040, 시카고는 \$2,387이다.
- 특히 통근 거리가 멀고, 백인 인력이 많고, 팬데믹 제한 조치가 심한 도시들의 경우 이 같은 지출 손실이 더 크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WSJ: Don't Count on China to Save the World Economy

글로벌 경제 회복에 중국 의존하지 말라

- 글로벌 경제가 중국의 반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 2008년 금융 위기 후에는 중국의 정부 주도의 부양책과 대규모 투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 그러나 현재 중국은 부채 상황이 깊은 데다 주택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고, 중국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상당 부분이 이미 세워진 상태다. 따라서 소비자가 반등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그런데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낮은 상태다. 부유층은 지갑을 열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계층은 지출 대신에 저축하고 있다. HSBC 측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겠지만 현재 경제 반등의 성격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주는 여파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From Apple to VW, CEOs Gradually Returning to China After Its Reopening

주요 다국적 기업들, 중국에 다시 접근... 미·중 갈등 불구

- 미국과 중국의 스파이 풍선 격추 사건 이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중국을 방문하며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애플, 폭스 바겐, 화이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경영진들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 계획이다.
- 이들은 팬데믹 3년 동안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셈인데 중국 정부가 이들 경영진으로부터 대중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
- 이들 경영진은 생산 시설과 현지 책임자들을 방문하고 일부는 정부 관료와 지역 비즈니스 협력업체들을 만나고, 또 다른 경우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비즈니스 기회 모색이다.

WSJ 기사

[부동산]

CNBC: Here's what's happening with home prices as mortgage rates fall
작년 말 미 집값 상승폭 연 6.9%로 가장 낮아

- 작년 말 미 전역 평균 집값은 전년대비 연율로 6.9% 상승했다고 CoreLogic는 밝혔다.
- 이는 팬데믹이 주택 붐을 일으켰던 지난 2020년 여름 이후 연간 상승 폭이 가장 낮은 수치이다.
- 그러나 특히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의 월별 감소 수치가 작년 여름에 보였던 월별 감소폭보다 훨씬 작았다.

CNBC 기사

[고령화사회]

The Economist: The age of the grandparent has arrived
전 세계 조부모 계층 비율 크게 늘었다

- 이코노미스트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집계된 약 15억명의 조부모는 전체 인구 중 무려 20%를 차지하고 15세 미만의 자녀 숫자를 기준으로 조부모의 비율은 1960년 0.46%에서 오늘날 0.8%로 뛰어올랐다.
- 2050년까지 약 21억 명의 조부모(전체의 22%)가 차지하게 되어, 이는 15세 미만보다 약간 더 많은 숫자일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기대수명이 1960년 이후 51세에서 72세로 늘었고 저출산과 함께 가족이 줄어든 것. 같은 기간 동안 여성 한 명당 평생 출산율이 5명에서 2.4명으로 감소했다.
- 이러한 추세로 조부모의 양육을 돕는 역할, 양육 조력, 가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큰 부분이 된다는 것.
- 특히 양육 측면 조부모들은 단순히 손을 보태는 것에 더해 자녀에게 전통, 이야기, 노래, 역사의식까지 물려주게 되며, 이것이 아이와 부모에게 큰 힘이 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I asked 30 health and wellness professionals how they avoid burnout—here are 4 things they all do
번아웃을 피하는 네 가지 방식은?

- CNBC는 30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번아웃이 다가올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4가지 조언을 전했다.

1. 유대감 형성하기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꼭 직장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친구들, 같이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필요할 때 휴식하기

눈앞에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로 보일 때 주어진 과제들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쉬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조직을 위한 일이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휴식이 필요하다. 간혹 휴식조차 '일'로 보지 말 것.

3. 목적 기억하기

일이 단순히 돈이 아닌 삶의 방향에서 이루어지는지 돌아보면 좋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면 충분하다는 생각과 더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둘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4. 다른 재미있는 일 찾기

일에 올인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적절히 에너지를 분배하는 사람이 사회, 경제적으로 보다 성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거창할 것 없이 잠시 밖에 나가 간식을 먹거나 계획 없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 등 다른 즐거움을 찾는다면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NBC 기사

WSJ: Amazon, Microsoft, Google Pressured by Chinese Cloud Rivals in Southeast Asia

아마존·MS·구글, 중국의 동남아 클라우드 경쟁사들에 압박 받아

- 중국의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는 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시장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이 여전히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그곳에서 고객들과 업계를 사로잡기 위해 더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 동남아는 클라우드 회사를 포함한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우선순위'의 시장인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시장보다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AWS(아마존 웹서비스)의 경우 데이터센터와 기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15년간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구글은 지난해 여름부터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내놓고 국가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WSJ 기사

CNBC: Adidas shares tank after company issues warning over unsold Yeezy stock

아디다스의 골칫덩어리로 되어버린 'Yeezy', 실적 부담 토로

- 아디다스는 기존 이지(Yeezy)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면 2023년 약 12억 유로(13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수 있다.
- 래퍼 칸예 웨스트와 협업한 'Yeezy' 라인업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그가 일련의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후 10월에 제휴를 파기한 것.
- 이에 성명에서 "이지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양에 따라 얻게되는 악영향을 이미 설명했다"고 전했다.
- 아디다스의 주가는 2월 10일 런던시간 오전에 11% 하락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물가 반등하면 긴축 강화' 우려에 달러가치↑...유가는 하락"

달러지수 한때 5주새 최고치 근접...원/달러 환율 12.1원 뛰어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화와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전장 대비 0.56 오른 103.686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114.7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던 달러 지수는 이달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해 지난 8일 1월 6일 이후 최고치인 103.964를 기록했으며, 이날 오전 한때 103.819까지 올라 최근 5주새 최고점에 근접했다.

이러한 달러화 강세는 14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1월 CPI 상승률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월 CPI는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 0.5%에서 11월 0.2%, 12월 0.1%로 내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에 다시 올라 최근 3개월 새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10일	2/3일	전주말대비		2/10일	2/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090.5	4,136.5	-1.11%	국채 금리 10y	미국	3.73%	3.52%	21bp
	유럽	457.89	460.77	-0.63%		독일	2.36%	2.19%	17bp
	중국	3,260.7	3,263.4	-0.08%		영국	3.40%	3.06%	34bp
	일본	27,671	27,509	0.59%	CDS 5y	한국	42bp	40bp	2bp
	한국	2,469.7	2,480.4	-0.43%		중국	61bp	51bp	10bp
달러지수		103.63	102.92	0.69%	위험 지표	EMBI+	384	357	27bp
	유로화	1.0678	1.0795	-1.08%		VIX	20.53	18.33	12.00%
환율	엔화	131.36	131.19	-0.13%	WTI유	79.72	73.39	8.63%	
	위안화	6.8145	6.7980	-0.24%	원자재	구리	401.7	405.7	-0.99%
	원화	1,265.2	1,229.4	-2.83%		금	1,865.6	1,865.0	0.0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